



## 제1강 - 니체의 시들 - 나는 불꽃이다

이 동 용 (철학아카데미)

### 1. 높은 곳에서 쉬고 있는 새

즐겁다 혹은 기쁘다는 말을 언제 하게 되는 것일까? 지금 읽게 될 책의 제목이 《즐거운 학문》<sup>1)</sup>이라서 그냥 한 번 물어보고 싶다. 즐거움, 기쁨. 분명 모든 언어에는 감정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어떤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어감(語感)이 어떠한 것인가. 즐겁고 기쁠 때 우리는 마음이 가벼워지고 흥에 겨워 웃거나 춤을 추게 된다.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다. 도대체 언제 즐겁고 기쁘는가? 무엇인가 열망하던 것을 이뤄냈을 때가 아닐까. 성취감, 승리감, 이런 감정들이 즐겁고 기쁜 정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지금 《즐거운 학문》을 읽으려 한다. 독서 중에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즐거움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무엇이 즐겁지 않은 학문이고 무엇이 즐거운 학문인지에 대한 대답도 찾아내야 한다. 분명히 니체가 제목을 이렇게 정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무엇이며 또 그 내용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독서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야 한다. 하지만 독서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답을 찾을 때도 즐겁게 임해야 한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그렇게 독서에 임하면 좋을 듯 싶다.

《즐거운 학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메시나에서의 전원시>가 첨부되어 있다. 이것은 니체가 발표한 최초의 시로서 《즐거운 학문》이 출간되던 같은 해에 《인터나치오날레 모나츠슈리프트 Internationale Monatsschrift》라는 잡지 5월 호에 실린 글이다. 이것과 《즐거운 학문》 앞부분, 정확히 말해 서문 뒤에 실려 있는 <농담, 간계 그리고 복수>는 모두 시모음집에 해당한다. 서문과 함께 이 시들을 살펴보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삼는다.

니체는 《아침놀》을 “우리, 정신의 비행사들!”(아침, 422쪽)이라는 잠언으로 마감했다. 거기서 그는 “우리가 추구했던 곳, 온통 바다, 바다, 바다인 곳을 향해 날고 있”는 “새들의 군단”을 묘사했다. “무력함을 넘어 높은 곳으로 올라” 비상하는 새들의 군단을 바라보는 니체의 시선은 희망에 차 있었다. 그들에게서 자유의 정신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자유정신은 미래를 여는 “좋은 징후”(아침, 421쪽)였다. 그리고 <메시나에서의 전원시>의 첫 번째 시詩도 새에 대한 묘사가 이어진다.

#### 포겔프라이 왕자

이제 나는 바다와 언덕 위로 높이 솟은  
휘어진 가지 위에 앉아 있다네  
새 한 마리가 나를 손님으로 초대하기에  
나는 날개를 재빨리 펴덕이며  
그를 향해 날아왔지

1) 책세상 판 니체전집 제12권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원활한 독서를 위해 완전한 오역이 아닌 이상 근거를 밝히지 않고 번역을 조금씩 수정해놓았음을 밝혀둠. 이 책에서 인용된 것에 대해서는 괄호 안에 페이지 숫자만 밝히기로 함.

흰색 바다는 잠이 들고  
내 모든 근심과 한탄도 잠잠해졌네  
목표와 향구를 잊고  
두려움도 칭송도 징벌도 잊었다네  
이제 나는 모든 새들을 쫓아 날아간다네

그냥 한 걸음씩 발을 떼는 것 - 그것은 삶이 아니지!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고되고도 힘든 일!  
바람을 타고 솟아올라  
모든 새들을 향해  
날개를 젖는 것을 나는 사랑한다네

이성? - 그것은 어리석은 것  
이성과 혀는 자주 걸려 넘어지지!  
비상<sup>飛翔</sup>은 내게 새로운 힘을 주고  
더 멋진 일들을 가르쳐주지  
노래와 익살, 가곡 연주를

고독한 사색 - 그것은 지혜로운 것  
고독한 노래 - 그것은 어리석은 것  
그러니 내 주위에 둘러앉아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려무나  
아름다운 새들이여! (9쪽 이후)

시의 제목은 <포겔프라이 왕자<sup>Prinz Vogelfrei</sup>>라고 한다. 독일어에서 포겔프라이<sup>Vogelfrei</sup>는 '새처럼  
엿매이지 않고 자유롭게<sup>frei wie ein Vogel, ungebunden</sup><sup>2)</sup>란 뜻으로 원래 16세기부터 법률의 보호를 박  
탈당하여 추방됨으로써 부랑자가 되어 떠돌아다니는 자를 일컫는 말로, 즉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던 개념이다. 하지만 시의 내용상 니체는 이 개념을 이런 뜻으로 사용한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뒤에<sup>3)</sup> 왕자라는 말까지 붙여놓은 것으로 보아 지극히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한  
것 같다. 자유롭게 방랑하는 철학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게 돋보일 뿐이기 때문이다.

포겔프라이 왕자는 시적 자아다. 시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주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한 마리의 새로 등장한다. 새의 본질은 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그는 다른 "새 한  
마리가 나를 손님으로 초대하기에" 날아와 "바다와 언덕 위로 높이 솟은 / 휘어진 가지 위  
에 앉아 있다." 높은 곳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지혜로운 고독한 사색을 하고 있  
다. 하지만 이성<sup>3)</sup>에 의한 "고독한 노래"를 부르지는 않는다. 그런 노래는 어리석다고 판단되  
기 때문이다.

"이성? - 그것은 어리석은 것 / 이성과 혀는 자주 걸려 넘어지지!" 포겔프라이 왕자가 부르  
는 노래는 이성적인 노래가 아니라 지혜의 소리라고 한다. "그러니 내 주위에 둘러앉아 /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려무나 / 아름다운 새들이여!" 포겔프라이 왕자는 새들과 소통하고자 한

2) <https://de.wikipedia.org/wiki/Vogelfreiheit>

3) 제목을 위치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면 왕자 포겔프라이>가 된다.

다. 멀리 날아온 자들과 함께 대화하고 싶은 것이다. 날아오면서 얻은 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다. “비상은 내게 새로운 힘을 주고 / 더 멋진 일들을 가르쳐주지 / 노래와 익살, 가곡 연주를”. 날면서 배운 노래는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된 이성으로 불러대는 고독한 노래가 아니다.

그리고 시를 시작하면서 등장하고 있는 앓아 있다는 상황은 왠지 낯이 익다. 《아침놀》을 마감하던 잠언 속에서 니체는 이런 말을 남겨놓은 바 있다. “우리, 정신의 비행사들! - 멀리,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가는 이 모든 대담한 새들. 분명히 그것들은 더 이상 날아갈 수 없게 되어 뜻이나 황량한 절벽에 내려앉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 비참한 숙소에 지극히 감사하면서! [...] 우리의 모든 위대한 스승과 선구자들은 결국 멈춰 섰다. 이들 피로한 사람들이 가장 고귀하면서도 가장 우아한 몸짓으로 멈춰 선 것은 아니다. 나도 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아침, 422쪽 이후) 아무리 위대했던 사람도 아무리 열정적으로 살아온 사람도 언젠가는 더 이상 날지 못하고 내려앉아야만 하는 순간이 있다.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왔다. 높은 곳까지. 그리고 이곳에서 쉬고 있다. 주위는 모두 잠잠하다. 모든 것은 잠이 들었다. 근심도 걱정도 모두 잠잠해졌다. 모든 목표도 잊혀졌다. 잠이 들고 잠잠해지고 잊혀진 상태에 도달한 포겔프라이 왕자는 그곳까지 날아올 수 있는 새들과 소통하기를 갈망한다. 새들의 소리만이 주변에 가득하다. “바람을 타고 솟아올라 / 모든 새들을 향해 날개를 젓는 것을 나는 사랑한다네”. 포겔프라이 왕자가 사랑하는 것은 삶이다. 그 삶의 현상은 한 걸음씩 떼는 것이 아니다.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포겔프라이 왕자가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높이 날 수 있는 삶이다. 그가 사랑하는 삶이다.

## 2. 바람을 이용하는 지혜

새라는 소재에 맞춰 일곱 번째 시로 건너 뛰어보자. 이번에는 제목이 <알바트로스>다. 갈매기처럼 바다에 사는 새이다. 포겔프라이 왕자처럼 멀리 또 높이 날 수 있는 존재이다. 생철학자 니체가 즐거움과 기쁨의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생명체이다. “그냥 한 걸음씩 발을 떼는 것 - 그것은 삶이 아니”라고 했다. 천천히! 꾸준히! 변화에 임하라고 가르쳤던 생철학자 니체는 이제 비상의 비결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제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다. 발걸음이 힘든 이유를 밝혀주고자 한다. 존재의 무게는 중력에 의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고자 한다.

### 알바트로스

오, 놀라워라! 아직도 날고 있는가?  
하늘로 솟아오르면서도 날개는 쉬고 있다니!  
무엇이 그를 떠받쳐주는 것일까?  
무엇이 그의 목표이며 향로이며 고삐인가?

높이 날아올라 - 이제는 하늘이  
이 개선의 비행을 떠받치고 있다

이제 그는 조용히 쉬면서 날아오른다  
승리도 잊고, 승자도 잊은 채

별처럼, 영원처럼 이제 그는  
삶이 갈망하는 저 높은 곳에서 살고 있다  
질투조차 동정하면서 -  
그가 나는 것만 보아도 높은 곳에 이르리라!

오, 알바트로스여!  
영원한 충동이 나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노라!  
너를 생각하면, 흘러내리는 눈물  
그리고 또 눈물 - 아,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 (18쪽)

〈포겔프라이 왕자〉에서는 높은 곳에 도달한 경지에서 “목표와 항구를 잊고” 있다고 했었다. 〈알라트로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등장한다. “무엇이 그의 목표이며 항로이며 고삐인가?” 독일어 원문으로 보면 세 개념들은 “칠 운트 축 운트 취겔 Ziel und Zug und Zügel”로 두운법에 맞춰져 있다. 이성적 문장은 의미를 전제한다. 의미가 없다면 이성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의 문장이 이성적이라면 반드시 특정 의미를 지녀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목표이며 목적의식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롭게 나는 새에게 목표가 있을까? 자유는 목적의식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목표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이 자유다. 자유정신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어느 하나의 이념에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념과 연관될 뿐이다. 바로 이런 비상의 현상 때문에 새는 자유의 상징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다.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면서 말이다.

새는 밖에 있을 때 새답다. 새는 날고 있을 때 새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새는 공중에서 진정한 삶을 펼치게 된다. 인간이 그토록 안달복달하며 땅따먹기하고 있는 이 대지로부터 벗어나 멀리 그리고 높이 솟아오른 새. 그는 모든 이념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다. 이념은 이성의 영역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이성과 혀는 자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될 뿐이다. 아무리 이성적인 발언이라 해도 또 다른 이성에 의해 공격을 받게 마련이다. 완전한 이성은 없다. 그런 것은 없다. “절대적 진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사실도 없다.”(인간적 I, 25쪽) 한방에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열쇠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는 어김없이 시간과 공간의 원리에 따라 조직되고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삶은 이 원리 속에서 진행될 뿐이다.

그런데 인간은 바로 이 이성을 통해 또 다른 신세계를 접할 수도 있다. 이성은 계산능력이라 했다. 이 능력을 다르게 활용하면 모든 정답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신을 탄생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은 이런 이성을 통해 해탈하는 비결을 알려주고자 했다. 이 고통스러운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주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같은 방법을 취하기는 하지만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제3의 눈”(아침, 380쪽)을 선사해주고자 한다. 니체는 이런 눈을 통해 “거의 모든 상황에서 기쁨으로 통하는 작은 문과 피난처를 갖게 된다”(같은 곳)고 확신하고 있다.

비상은 새로운 것을 가르쳐준다. 날 수 있게 되었을 때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된다. <포겔프라이 왕자>에서의 구절을 다시 상기해보자. “비상은 내게 새로운 힘을 주고 / 더 멋진 일들을 가르쳐주지”. 그렇다. 비상은 과거의 것을 반복하게 하는 일상의 범주에 있지 않다. 비상은 일상의 것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하고 새로운 가치로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새로운 도덕을 갖게 해주고 또 새로운 신을 믿게 해준다.

걷고, 뛰고, 춤추고, 물구나무서기하고, 급기야 비상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가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지금까지 그토록 안달하게 했던 세상의 고통들이 이제는 비상의 힘이 되어 떠받쳐주고 있다. 바람은 이제 저항할 필요가 없다. 대항할 의미를 상실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새는 오히려 높이 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중력은 이제 그의 삶의 무게를 느끼게 하지 못한다. 힘들어 할 때 등 뒤에 올라타 괴롭힌다는 코볼트조차도 이제 가소롭게 보일 뿐이다. “불안에 대한 상상은 저 불쾌한 원숭이를 닮은 요괴 코볼트와 같다. 그것은 인간이 이미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또 인간의 등에 뛰어오른다.”(인간적I, 404쪽) 불안은 이제 비상할 수 있는 자에게는 망각 속에 들어가 버렸다. 불안은 그의 것이 아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은 이제 그의 삶이 아니다.

알바트로스는 포겔프라이 왕자처럼 하늘 높이 솟아올라 있다. 그곳에서 날갯짓도 하지 않으면서 활공을 하고 있다. 자신의 동력은 끈 상태지만 자신에게 닥쳐오는 바람을 오히려 동력으로 활용할 줄 아는 지혜 덕분에 날고 있으면서도 쉴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토록 승리를 열망하던 정신도 이제는 휴식을 취한다. 그토록 삶의 현장을 전쟁터로 인식하던 생철학의 이념도 이제는 평온을 지향한다. 더 이상 싸울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힘을 확인할 유용한 적敵도 필요 없다. 마치 윤회를 벗어나 해탈한 경지에 도달한 성자의 모습과 같다.

모든 삶은 저 높은 곳을 갈망했다. 바람 한 점 없을 것만 같은 그 허공을 열망했다. 그곳에 이르면 “질투조차 동정”의 대상이 되고 만다. 높은 곳에서 느끼게 되는 동정은 경계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그런 것이 아니다. “동정은 병일 뿐이다.”(인간적I, 76쪽) “동정이란 영혼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다.”(같은 책, 78쪽) “동정을 갖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같은 곳) 이렇게 말하는 그런 동정이 아니다. 높은 곳을 갈망하는 자들은 그저 대지 위를 힘들게 걷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자신의 발걸음으로부터 해방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은 높이 나는 새들을 질투한다. 하지만 새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기어아만”(아침, 382쪽) 하는 존재들의 질투를 향해 동정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그를 안타깝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니체는 허무주의 철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려무나” 하면서.

4연에 이르러서는 시적 자아가 직접 등장한다. 그는 다시 알바트로스를 동정한다. 그를 향해 뜨거운 눈물을 쏟아놓는다. 이곳, 이 높은 곳까지 올라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를 생각하면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충동이 나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노라!” 영원한 충동! 그것이 이토록 높은 곳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욕망의 불을 끄라는 니르바나Nirvana의 방식이 결코 아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니르nir는 밖으로aus라는 뜻이고 바va는 바람이 불다의 뜻이다. 그 바람은 욕망의 불을 끄는 바람이다. 힌두교나 불교의 방식은 염세주의적이다. 하지만 허무주의의 방식은 오히려 그 “영원한 충동”을 이용한다. 고통의 원인을 벗어던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렬하게 열망한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

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우상, 77쪽)라는 생각으로 고통에 임한다. 죽을 각오로 덤벼든다. 사즉필 생(死即必生), 즉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일념으로 치열하게 맞선다.

고통을 맞이하여 치열하고 살아온 증거가 바로 높은 곳에 이른 존재가 보여주는 삶이다. 니체가 사랑하는 삶이다. “아,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 알바트로스를 향한 사랑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무거운 존재의 짐을 짊어지고 기거나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모습의 삶은 삶이 아니라고 했다. “고되고도 힘든 일”로 일관하는 삶은 허무주의 철학이 염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다. 니체가 열망하는 삶은 비상할 수 있는 삶이다. “바람을 타고 솟아올라 / 모든 새들을 향해 / 날개를 젓는 것을 나는 사랑한다네”. 이것이 포겔프라이 왕자의 사랑고백이었다. 허무주의 철학은 사랑고백으로 충만해있다.

### 3. 시를 짓는 시인의 자기비판과 웃음의 철학

허무주의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처녀작 《비극의 탄생》에서부터 이미 자기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두 번째 서문에 해당하는 〈자기비판의 시도〉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한 비판의 목소리였다. 늘 극복하는 자세로 살고자 했던 것이다. 극복한 이후의 자아는 극복 이전의 자아를 향해서 받아들이 수 없는 거리감을 느끼게 된다. 늘 허무함을 오게 하고 또 그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한다. 권태를 오게 하고 또 그 권태를 이겨내고자 한다. 사람도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는 법이다. 그래서 “나쁜 교사들”이라고 자처하는 허무주의 철학자는 “인간에게 인간이기를 그칠 것을 가르친다”(아침, 332쪽)는 것이다.

“모든 새들을 쫓아 날아”온 포겔프라이 왕자는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려무나 / 아름다운 새들이여”하며 당당하게 노래했었다. 그는 비상을 통해 배운 지혜를 들려주고자 했다. “노래와 익살, 가곡 연주를” 통해 “더 멋진 일들을 가르쳐”주고자 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금치가 넘쳐흘렀었다. 그런데 일련의 시들이 끝나는 시점에 이르러 니체는 자기비판적인 시를 남겨 놓는다. 그가 써놓은 시들에 대한 〈새의 판결〉을 듣고자 하는 것이다. 시험장이다. 재판장이다. 시가 시다운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새의 판결

예전 언젠가 휴식을 취하려  
나무 그늘 아래 앉았을 때  
나는 들었네, 나지막이 푹푹거리는 소리를  
장단을 맞추듯 우아한 소리였지  
화가 나서 얼굴을 찌푸리다가  
마침내 마음을 돌려  
심지어 스스로도 시인처럼  
푹푹 장단에 맞춰 말하게 되었지

이렇게 시구를 만들어가며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네 장단과 함께 뛰어 노노라니  
갑자기 웃음이 터져, 웃고 또 웃었지

15분간이나

네가 시인이라고? 네가 시인이라고?

네 머리가 그리고 멍청하단 말이니? -

"네, 그래요! 당신은 시인이랍니다."

- 딱따구리는 이렇게 말했지 (19쪽)

시를 쓴답시고 시를 썼던 니체는 자신의 시에 대해 한바탕 웃음 터뜨렸다. 그것도 15분 동안이나. 15분은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 정말로 15분 동안 웃어보라. 얼마나 죽을 것 같은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웃다가 죽을 것 같은 느낌. 멈추지 않는 인식의 쓰라림이 동반되는 순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순간에는 웃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깨달음이 가져다주는 감정은 차마 말로 옮길 수가 없어 웃음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래 웃자! 웃으면 그만이지 뭐'하고 웃는 것이 아니라 그저 웃음보가 터진 것이다.

너무도 가소롭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네 머리가 그리고 멍청하단 말이니?"하고. 인식은 늘 느닷없이 와준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 웃고 또 웃었지"하며 웃음보가 터지면서 자신의 업적에 대해 비판적 인식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딱따구리의 "나지막이 똑딱거리는 소리를" 따라 만들어낸 시들은 "장단을 맞추듯 우아한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만족감이나 행복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히려 "화가 나서 얼굴을 찌푸리"게 되는 원인이 될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똑딱거리는 소리에 맞춰 시를 써왔던 시인을 향해 딱따구리는 판결을 내린다. "네, 그래요! 당신은 시인이랍니다." 이 판결을 들은 시인은 이미 시인을 넘어서 있다. 똑딱거리는 장단에 맞춰 만든 하찮은 시를 보고 그것이 시라고 평가하는 "새의 판결" 자체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한 장을 넘기면 본격적으로 《즐거운 학문》이 시작된다. 모토로 "내 집 문 위에 적힌 글"을 선택한다. 아마도 니체는 자신의 집 문 위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었나보다.

나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모방하지 않으며

내 집에 기거하노라,

그리고 마음껏 웃을 줄 모르는

모든 대가들을 비웃노라, (21쪽)

괴테(Goethe(1749-1832)의 <프로메테우스>에서처럼 자기 집에 대한 금지가 읽혀진다. 거기에 "그러나 나의 대지는 / 손대지 말고 내버려두라 / 네가 짓지 않은, 나의 작은 집과, / 불길 때문에 네가 / 나를 질투하는 / 나의 화덕도"<sup>4)</sup>라는 구절이 있는데, 니체의 집 문 위에 적힌 글이 바로 이런 괴테의 이념으로 연결되는 듯하다. 신과 맞서는 거인처럼 니체는 "내 집에 기거하노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자기 집! 그 집 안에는 그 어떤 모방도 존재하지 않는다. 니체의 정신은 아무것도 추종하지 않는다. "나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모방하지 않으며"라는 주장 속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오로지 독창적인 창작 의지만으로 채워져 있을 뿐이다. 딱따구리의 똑딱 장단 따위는 존재

4) Goethe: Gedichte. Sämtliche Gedichte in zeitlicher Folge, hg. v. Heinz Nicolai, Frankfurt am Main 1992, 162 ; "Doch lassen stehn / Und meine Hütte, die du nicht gebaut, / Und meinen Herd, / Um dessen Glut / Du mich beneidest."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 웃음거리는 니체의 집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그 어떤 모방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웃음을 언급한다. “그리고 마음껏 웃을 줄 모르는 / 모든 대가들을 비웃노라.” 웃음은 사실 《비극의 탄생》 때부터 줄곧 언급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때 그는 〈자기비판의 시도〉에서 “웃는 자의 이 왕관, 이 장미 화환의 관, 나는 이 왕관을 스스로 머리에 썼다. 그리고 나 스스로 나의 웃음을 신성한 것이라고 말한다”(비극, 23쪽)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예언자 차라투스트라”도 “참된 웃음을 웃는 자”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서문 마지막에 다시 웃는 자의 왕관을 반복 언급하면서 마감한다. “웃는 자의 이 왕관, 이 장미 화환의 관, 내 형제들 이여, 나는 이 왕관을 그대들에게 던진다! 나는 웃음이 신성하다고 말했다. 그대들 보다 높은 인간들이여, 내게 배워라 - 웃음을!”(같은 곳) 간절함이 읽힌다.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웃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이다. 기도드리고 싶다면 웃음으로 기도를 올리라는 것이다. 웃음보다 더 성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이다.

웃음의 철학! 허무한 웃음을 성스러운 웃음으로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철학을 니체는 가르치고자 한다. 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성스럽게 웃는 비결이다. 그냥 헛웃음이 아니다. 표정과 감정이 일치되어야 한다. 무대 위에 서서 연기를 해본 자는 알 것이다. 행동과 감정을 일치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진정으로 성스럽게 웃으라고 가르치는 허무주의 철학의 진심을 배워야 한다. 그렇게 웃지 못하는 자에게는 냉정한 훈련조교처럼 ‘그것 밖에 못하냐!’하고 호통을 치는 것 같다. 아니 더 기분 나쁜 행동을 취한다. 비웃음으로. 때리지 않는다고 좋아하는 허약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는 허무주의 철학을 배울 수가 없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한다. 독일 격언에는 ‘라헨 이스트 게존트 Lachen ist gesund’, 즉 ‘웃음이 건강이다’라는 말이 있다. 건강한 게 복이라는 얘기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웃음이다. 생철학자 니체는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아야 할 삶을 변호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웃음임을 인식한 것이다. 과거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곳에서는 늘 웃음을 거부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기호학자 움베르토 에코 Umberto Eco(1932)는 《장미의 이름 Il nome della rosa》(1980)에서 웃음이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신성을 제거하는 요소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웃음은 공포를 죽인다. 그리고 공포가 없다면 신앙도 존재할 수 없다. 악마에 대해 공포를 더 이상 갖지 않는 자는 신도 더 이상 필요 없다. [...] 그러면 우리는 신에 대해서도 웃을 수 있다.”<sup>5)</sup> 웃음이 공포를 죽이고, 공포가 사라지면 신앙도 필요 없어지고, 또 악마에 대해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면 결국 신도 필요 없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웃음은 실로 치명적인 독<sup>毒</sup>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웃음이 없는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다. 살기 위해 웃음이 필요하다. 삶을 살답게 만들기 위해 웃음을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신화 속 인물 프로메테우스가 처음으로 불을 인류의 손에 쥐어 줬다면,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처음으로 웃음을 신성하게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웃음이 겔로톨로지 Gelotologie라는 하나의 학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겨우 1964년의 일이었다.<sup>6)</sup> 아직도 웃음을 접하면서 성스러운 감정보다는 불편한 감정이

5) <https://de.wikiquote.org/wiki/Lachen>; “Lachen tötet die Furcht und ohne Furcht kann es keinen Glauben geben. Wer keine Furcht mehr vor dem Teufel hat, braucht keinen Gott mehr [...] dann können wir auch über Gott lachen.”

6) , <https://de.wikipedia.org/wiki/Gelotologie>; “Begründer der Gelotologie ist der Psychiater William F. Fry, der 1964 an der Stanford-University erstmals über die Auswirkungen des Lachens auf die körperlichen Vorgänge forschte.”



더 크다. 웃음을 선의(善意)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즐거운 학문》을 숙독(熟讀)해야 하는 이유다.

#### 4. 빙하에서 풀려난 해빙기의 언어

《즐거운 학문》은 말 그대로 즐겁다. 즐겁지 않았다면 니체는 이 책의 제목으로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것이다. 《아침놀》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힘의 태양을 인식했다면 이제 정오를 향해 달음박질하고 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언급되었던 자유정신은 《즐거운 학문》에서 절정에 달한다. 이보다 더 자유로울 수는 없으며 또 이보다 더 즐거울 수는 없다. 니체의 정신은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고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때로는 비상을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절정기를 향한 그의 정신은 문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서문의 첫 대목을 한번 읽어보자.

이 책은 해빙기의 언어로 씌어진 것처럼 보인다. 즉, 이 책에는 오만, 불안, 모순, 변덕스런 봄 날씨 등이 뒤섞여 있어,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겨울과 이 겨울의 극복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듣게 될 것이다. 이 겨울은 도래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으며, 혹은 이미 도래해 있는지도 모른다... 마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거나 한 것처럼 끊임없는 감사가 흘러나온다.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의 감사가 - 왜냐하면 이 회복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즐거운 학문”; 이 책은 무섭도록 오래 지속된 억압에 저항해온 - 하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이, 끈기와 엄격함과 냉정함만을 가지고 굴복하지 않아온 - 정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건강에 대한 희망, 회복기의 도취감에 사로잡힌 정신의 사투르날리아 축제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되고 어리석은 것들이 밝혀지고, 가시 돌친 가죽으로 덮여 있어 꺼안거나 유혹할 수 없는 문제들에도 장난기 어린 애정을 쏟았던 것은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이 책 전체는 다름 아닌 오랜 결핍과 무력감 이후에 맛보는 기분 전환이다. 이 책은 되돌아온 활력과 내일과 미래에 대해 새로 피어나는 믿음의 환호성이며, 미래와 임박한 모험, 다시 열린 바다, 그리고 다시 허락되고 다시 믿게 된 목표에 대해 갑작스레 솟아난 느낌과 예감이 소리 높여 외쳐대는 환호성 바로 그것이다. (23쪽 이후)

니체는 긍정적인 말들을 반복한다. 이 책은 환호성이며 환호성이라고. “해빙기의 언어로 씌어진 것”이라고. “마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생기거나 한 것처럼 끊임없는 감사가 흘러나온다”고. 그 감사는 다름 아닌 “회복기에 들어선 환자의 감사”라고. 왜냐하면 그 “회복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라고. 결국 “즐거운 학문”이라 불리는 이 책은 “굴복하지 않아온 - 정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건강에 대한 희망, 회복기의 도취감에 사로잡힌 정신의 사투르날리아 축제”라고.

사투르날리엔(Saturnalien)이라고도 불리는 로마 시대의 축제를 니체는 “즐거운 학문”과 비교하고 있다. 이 축제가 열릴 때는 노예들에게 일종의 야자타임이 허용되었다고 한다. 말하자면 노예들 중에서 ‘사투르날리쿠스 프린체스(Saturnalicus princeps)’라 불리는 군주를 뽑아서 귀족들이 그에게 복종을 하는 것이다. 이 군주의 별명이 ‘렉스 비벤디(Rex bibendi)<sup>7)</sup>, 즉 음주의 왕이라 불린 점

7) <https://de.wikipedia.org/wiki/Saturnalien>

으로 보아 디오니소스 축제 때처럼 술 파티가 주류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취함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디오니소스 축제 때는 말 그대로 황홀경, 엑스타제, 망아를 지향했다면 사투르날리엔 축제는 술의 도움을 받아 흥겨운 역할놀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축제는 끝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축제가 끝나고 나면 전세는 다시 역전되고 마는 것이 야자타임의 묘미다. 노예는 예전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즐거운 학문”도 이런 상황을 환기시키려고 애를 쓴다. 질병에서 회복된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 자체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는 아니다. 인생은 고해(苦海)다. 이것은 지울 수 없는 진리일 뿐이다. 그래서 니체는 이 책이 “해빙기의 언어”로 씌어져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겨울과 이 겨울의 극복에 대한 경고를 끊임없이 듣게 될 것”이라고 일러둔다.

“이 회의적이고도 거침없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는 ‘비극이 시작된다’<sup>Incipit tragoedia</sup>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조심하라! 철저하게 고약하고 악의적인 것이 방문을 예고하고 있다: 패러디가 시작된다<sup>Incipit parodia</sup>. 의심할 바 없이...”(24쪽 이후)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보여주는 삶의 지혜다. 삶의 대가가 지녀야 할 덕목이다. 비극이 시작될 것이다. 눈물을 쏙 빼놓을 것이다. 고통이 엄습해올 것이다. “조심하라! 철저하게 고약하고 악의적인 것이 방문을 예고하고 있다.” 이 말은 장난이 아니다. 고대하던 손님이 찾아온다는 소리가 아니다. 상상도 못했던 고통의 순간이 엄습해올 것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다.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동반될 수도 있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니체는 여기서 말을 잊지 못한다. 잠시 생각에 잠겨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 비극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 또한 패러디에 불과하다! 고통의 늪에 빠져 허덕이지 말고 인생을 관조하는 “제3의 눈”(아침, 380쪽)을 가져달라는 것이다.

고통조차 관조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가지려면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즉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철저한 고독”(24쪽)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독을 즐기지 못해 불행을 겪게 된다. “인간에게 인간이기를 그칠 것을 가르친다”는 “나쁜 교사들”(아침, 332쪽)의 가르침조차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이런 능력이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이다. 비가 와도 좋고 눈이 와도 좋다. 해가 뜨면 더 좋을 뿐이다. 방문을 예고하고 있는 악의적인 것조차 준비된 상태로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놀이의 대상으로 바뀔 것이다.

삶의 대가 다운 이런 능력을 갖출 때까지 남국의 따스함이 느껴진다고 해서 긴장을 쉽게 풀어놓아서는 안 된다. 이런 순간일수록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는 인식으로 임해야 한다. 즐길 때는 즐기되 항상 그 다음을 염두에 두라는 것이다. 이것이 허무주의적 축제 분위기다. “이 겨울은 도래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도래할 수밖에 없으며, 혹은 이미 도래해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즐거운 순간을 맞이하라는 것이다. 누구는 이런 순간을 불쾌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진정한 즐거움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물론 맞는 말이다. 진정한 허무주의는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장과 풀림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경지를 지향한다. 마치 불교가 윤회를 거듭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지인 해탈로 넘어가야 하듯이 말이다.

어쨌거나 “즐거운 학문”은 지금 당장은 즐겁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음을 전하고자 한다. “이 책 전체는 다름 아닌 오랜 결핍과 무력감 이후에 맛보는 기분 전환이다.” 마치 “집과 고향으로부터 소외되어 간악한 난쟁이들에게 사역당해왔던 저 긴 세월의 굴욕”(비극, 177쪽)으로부터 해방된 기분 전환과 같다. 오랜 결핍과 무력감 이후! 이 이후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려면 그 오

랜 결핍과 무력감 속에서 지내야만 했던 시간들을 전제해야 한다. 온 천지가 물이 바다의 한가운데서 마실 물은 한 방울도 찾을 수 없는 상황, 또 온 천지가 흙으로 뒤덮여 있지만 식물은 전혀 살 수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해봤어야 한다. 니체의 말로 표현하자면 허무함을 느껴봤어야 한다는 것이다. “권태의 대가”(인간적II, 348쪽)가 되기 전에는 오랜 결핍과 무력감 이후에 찾아드는 기분 전환의 순간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체의 정신은 회복을 거듭했고 지금 이 순간은 “즐거운 학문”을 운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해졌다. 이 책은 환호성으로 가득하다. “이 책은 되돌아온 활력과 내일과 모래에 대해 새로 피어나는 믿음의 환호성이며, 미래와 임박한 모험, 다시 열린 바다, 그리고 다시 허락되고 다시 믿게 된 목표에 대해 갑작스레 솟아난 느낌과 예감이 소리 높이 외쳐대는 환호성 바로 그것이다.” 가슴이 벅차다. 만연체가 전하는 소리는 흥분 그 자체다. 숨이 가쁘다. 하지만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 경쾌한 감정이 넘쳐흐른다. 너무 기뻐 할 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마디로 환호성이며 환호성이다.

환호성! 프로록켄Frohlocken! 원문에는 사실 이 단어가 한 번만 사용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말들은 이 하나의 단어로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대중 적당한 곳에서 나눠서 한 번씩 언급해주는 번역도 괜찮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번역하나 저렇게 번역하나 니체의 본의만 해치지 않는다면 상관이 없다. 싫지 않은 흥분 상태! 활력으로 충만한 육체와 정신을 현상으로 보여줄 수만 있다면 문제없다고 본다. 환호성! 이것만 들려줄 수 있다면 성공한 번역이다. 환호성으로 충만한 《즐거운 학문》! 숨이 가쁠 정도로 외쳐대는 환호성으로 채워진 책,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책이다.

## 5. 병든 사상가와 철학적인 의사

허무주의 철학은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은 질병을 전제한다. “질병은 인식의 수단이다.”(인간적I, 14쪽) 병에 걸려야 건강을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병도 건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삶의 지혜에 해당한다.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면역력도 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더러운 물로도 몸을 씻어야”(인간적II, 59쪽) 하기 때문이다. 건강하기 위해 질병에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삶의 대가는 질병의 대가이기도 한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하지 못하면 의식도 하지 못한 채 스스로 뒷에 걸리고 함정에 빠지며 균형을 잃고 몰락할 수 있다. 그래서 니체는 “건강과 철학의 관계에 대한 물음보다 흥미로운 것은 거의 없을 것이다”(25쪽)라고 확신한다.

병에 걸리면 일상 순식간에 울스톱이다. 병석에 누우면 일상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 병이 든 환자는 ‘아프다’는 소리를 연속해서 쏟아내며 병에 집중할 뿐이다. 그것이 병의 힘이다. 문제는 이런 병의 힘에 짓눌린 정신 내놓는 철학에 있다. “우리 철학자들도 병이 들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병에 맡기고 - 우리 자신에 대하여 눈을 감아버린다.”(25쪽 이후) 자기 자신을 향한 눈을 감는 자는 누구일까? 그는 외부로 향한 눈에 집착하는 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눈을 뜨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기 자신을 찾을 수는 없다. 세상의 온갖 사물을 바라보아도 자기 자신은 찾을 수가 없다. 거울이 보여주는 영상조차 그저 외적인 현상뿐이다. 자기 삶이 직면한 문제 따위는 보여주지 않는다. 이것이 문제다. 이때 ‘너 자신을 알라’라는 명령이 귀에 들린다. 외부로 향한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이다. 그래

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용기의 징표들”(아침, 404쪽) 중 하나가 되기도 한다. 무협지에 나오는 무술의 고수는 눈을 감고 적과 싸우거나 적의 표창을 받기도 한다. 상상이나 가능할지 모르지만, 적 앞에서 눈을 감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자포자기를 의미하지 않는 한 최고 고수의 징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병에 걸린 허약한 육체와 정신은 자기 자신에 몰두하지 못하고 병에게 자기 자신을 맡겨버린다. 오로지 병만을 생각한다. 자기 안에 자기 자신이 있지 않고 병이 있을 뿐이다. 병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고 만 것이다. “모든 병든 사상가가 그렇듯이 - 아마도 철학사에는 병든 사상가가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다 - 심각한 고통이 철학을 하게 만드는 보다 일반적인 경우에, 병의 압박에 의해 생겨난 사상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25쪽) 니체는 바로 이것이 “중대한 관심사가 되는 물음”(같은 곳)이라고 간주한다. 철학을 아무리 공부해도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감겨 있던 눈을 떠보자!

이렇게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고, 자신을 실험해본 사람은 지금까지 행해져온 철학 전체를 보다 섬세한 눈길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는 고통받는 사상가가 바로 그 고통으로 인해 빠져들거나 유혹당하는 사상의 무의식적인 옆길과 골목길, 휴식처와 양지 등을 이전보다 더 잘 간파하게 된다. 이제 그는 병든 육체와 이것이 필요로 하는 바가 무의식적으로 - 어떤 의미에서 태양, 평온, 온화, 인내, 약, 청량제 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로 정신을 내몰고, 몰아붙이고, 끌어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26쪽)

끝까지 가본 자는 안다. 바닥을 차본 자는 안다. 화장실 가서 볼 일을 보고 나오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안경 하나만 바꿔도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아플 때와 건강할 때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이 간단한 진리를 알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비법도 터득할 수 있다. 원효사상으로 말하면 우리 중생을 얹매는 ‘아상(我相)<sup>8)</sup>을 버리면 되고, 예수의 가르침으로 말하면 먼저 자기 눈 속에서 ‘들보<sup>9)</sup>를 빼내면 되는 것이고,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으로 말하면 ‘마야의 베일<sup>10)</sup>을 벗겨내면 되는 것이고, 헤세의 표현으로 말하면 ‘알<sup>11)</sup>을 깨고 나오면 되는 것이다.

세상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다르게 보일 뿐 사물 자체가 변한 것은 아니다. 같은 공간 속에서도 누구는 답답함을 느끼고 누구는 한없이 드넓음을 만끽한다. 같은 여건 속에서도 누구는 불편함을 느끼고 누구는 지극히 행복감에 젖어 살기도 한다. 인간의 이성적 판단은 이토록 다양한 삶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 자기 생각에 얹매이고 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

8) : 원효대사, 애플북스 2014, 28쪽; “그러므로 우리 중생을 얹매는 것이 오직 아상이란 말요. 내라 내 것이라 하는 생각이 우리를 얹어매어서 날마다, 시각마다 생로병사의 모든 괴로움을 되풀이한단 말씀이요.”

9) 누가복음6:42;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10)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을유문화사 개정정보판/2015, 562쪽; “오히려 인도인이 말하는 것처럼 마야의 베일이 자연 그대로의 개인의 시선을 흐리게 하며, 그의 눈에 드러나는 것은 사물 자체 대신 시간과 공간, 즉 개체화의 원리 속에 나타나고 그 밖의 근거율의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

11) Hermann Hesse: Demian. Die Geschichte von Emil Sinclairs Jugend, Frankfurt am Main 1974, 91쪽; “새는 알에서 나오려 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은 아브락사스라고 한다. Der Vogel kämpft sich aus dem Ei. Das Ei ist die Welt. Wer geboren werden will, muss eine Welt zerstören. Der Vogel fliegt zu Gott. Der Gott heißt Abraxas.”

지 아무도 모른다. 모든 세상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 현상을 극복하는 일은 자기 책임일 뿐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질문으로 “자신을 실험해본 사람은 지금까지 행해져온 철 전체를 보다 섬세한 눈길로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 니체의 믿음이다. 예를 들어 열림은 갈망했던 제3의 눈도 이런 질문으로 자신을 실험했을 때 마침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연극에서처럼 세상을 내려다보는 눈을 열어라. 다른 두 개의 눈을 통해 세계를 들여다보는 커다란 제3의 눈을 열어라!”(아침, 380쪽) 자기 자신을 실험하는 정신이 급기야 온갖 철학이 내놓은 이념들까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그는 “고통받는 사상가”가 어떤 철학을 내놓는지도 이해하게 된다. “이제 그는 병든 육체와 이것이 필요로 하는 바가” 무엇인지까지도 “알게 되는 것이다.” 그의 눈을 피해갈 수 있는 사상은 없다. 모든 것이 그의 시선의 그물 속에 걸리고 마는 것이다. 그는 이제 세상을 극장 속의 무대처럼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쟁보다 평화를 높이 평가하는 모든 철학, 행복의 개념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모든 윤리학, 어떤 종류이건 간에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상태를 인식하려는 모든 형이상학과 물리학, 현실에서 떨어져 있고, 현실을 넘어서 있으며, 그 바깥에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모든 미학적, 종교적 요구 등에 직면할 경우, 우리는 그 철학자에게 영감을 준 것이 혹시 질병이 아닐까 하는 물음을 던져보아도 좋다. 병리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을 객관적인 것, 이념적인 것,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 등의 외피로 감추려는 무의식적인 시도는 놀라울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니체가 질병으로 규정짓는 것은 다양하다. “혹시 질병이 아닐까 하는 물음을 던져보아도” 되는 것이 너무도 많다. 그가 말하는 질병의 현상들을 하나씩 나열해보자. 첫째, “전쟁보다 평화를 높이 평가하는 모든 철학”, 둘째, “행복의 개념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모든 윤리학”, 셋째, “어떤 종류이건 간에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상태를 인식하려는 모든 형이상학과 물리학”, 넷째, “현실에서 떨어져 있고, 현실을 넘어서 있으며, 그 바깥에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모든 미학적, 종교적 요구 등”이 그것이다.

다시 천천히 생각해보자. 첫째는 “전쟁보다 평화를 높이 평가하는 모든 철학”은 질병일 수 있다. 그것은 병일 수 있다는 것이 니체의 판단이다. 때로는 전쟁이 평화보다 높이 평가를 받아야 할 때도 있다는 얘기다. 인류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서 지금까지 전쟁이 없었던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그런데도 전쟁이 완전히 근절되기를 바란다.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늘 다르게 펼쳐진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그 현실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현실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주려는 것이다. 때로는 잔인할 정도이다.

둘째는 “행복의 개념을 부정적으로 파악하는 모든 윤리학”이 병든 정신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에피쿠로스의 행복론에 관심을 가졌던 기독교인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의 글들이 거의 사라졌고 남아 있는 글들조차 기독교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바티칸의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다.<sup>12)</sup> 현실적인 삶에서 행복이 가능하다면 천국은 필요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일까? 분명 에피쿠로스의 행복론은 기독교인들의 심경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 분명하다.

셋째는 “어떤 종류이건 간에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상태를 인식하려는 모든 형이상학과 물리

12) , 이동용: 니체와 함께 춤을, 이파르 2015, 46쪽.

학"이 질병이라는 것이다.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상태를 인식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엔 늘 끝을 생각한다. 태초니 종말이니 하고 말이다. 선의 궁극에 신을 상상하고 악의 궁극에 악마를 만들어낸다. "지옥이 여기다. 모든 악마들이 여기에 다 있다! Die Hölle ist leer, alle Teufel sind hier!"<sup>13)</sup>는 셰익스피어의 말이 이제야 감이 잡히는 듯하다. 세상 속에서 지옥과 연옥 그리고 천국의 요소를 다 발견해내는 게 바로 르네상스의 이념인 듯하다. 단테(Dante(1265-1321)의 《신곡Divina Commedia》(1307-1321)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읽혀지기 때문이다. 삶은 과정에 불과한데 끝을 보려할 때 질병이 도지는 법이다.

넷째는 "현실에서 떨어져 있고, 현실을 넘어서 있으며, 그 바깥에 있고, 그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모든 미학적, 종교적 요구 등에 직면할 경우"가 질병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생각이든 시각이든 현실이 도외시된 경우라면 그것은 병든 것이다. 현실은 이상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배제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바로 이곳이 삶의 터전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아도 결국에는 끌어안고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야 한다. 구름 위에나 있을 법한 천국 따위는 그래서 허무함 그 자체에 불과하다. 시간과 공간의 원리를 기초로 하지 않은 이야기들은 모두가 허무하다.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증명할 길이 없는 이야기들, 간절히 원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이야기들, 육체와 얽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영원하는 모든 것들, 니체의 표현대로 말하면 "병리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은 거의 모두가 이성에 의한 해석으로 포장되어 있다. 그 포장은 "객관적인 것, 이념적인 것, 순수하게 정신적인 것 등의 외피로 감추려는 무의식적 시도"의 결과물일 뿐이다. 아무리 이념으로 충만하고 객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해도 그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모두 쓸모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인지라 이성적인 해석에 큰 의미를 둘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해석에 목을 맬 때가 많다. 사랑한다는 말 한 마디에 삶이 주어질 수도 있고 죽음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단어의 예외적인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사<sup>醫師</sup>를 고대하고 있다. 민족, 시대, 인종, 인류의 총체적인 건강의 문제를 진단하고, 내가 제기한 의혹을 끝까지 추구하여 모든 철학이 지금까지 다루어온 것은 "진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즉 건강, 미래, 성장, 권력, 삶 등이라는 명제에 과감하게 천착하는 그런 의사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26쪽 이후)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한다. 시간과 공간에 얽매인 존재에게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한다. 죽어야 할 존재에게 삶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고통으로 눈물을 쏟아내야만 하는 현실이 도대체 의미가 있는 것일까? 허무주의 철학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찾아야만 했던 것이다. 니체는 "나는 여전히 단어의 예외적인 의미에서 철학적인 의사를 고대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철학적인 의사'를 수식하는 "여전히 단어의 예외적인 의미"는 그 다음에 풀어서 설명해놓았다. 일종의 부연설명인 셈이다. 니체가 말하는 '철학적인 의사'는 그러니까 "내가 제기한 의혹을 끝까지 추구하여 모든 철학이 지금까지 다루어온 것은 '진리'가 아니라 다른 어떤 것, 즉 건강, 미래, 성장, 권력, 삶 등이라는 명제에 과감하게 천착하는 그런 의사"인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진리'에 열정을 쏟지 않는다. 허무주의 철학은 "건강, 미래, 성장, 권력, 삶

13) [https://de.wikiquote.org/wiki/William\\_Shakespeare](https://de.wikiquote.org/wiki/William_Shakespeare)

등"을 지향할 뿐이다. 오히려 '진리'에 허무함을 느낄 뿐이다. 말로만 설명이 가능한 진리. 그 진리의 모습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시대와 지역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날 뿐이다. '그땐 그랬지'하면서 허무해질 뿐이다. 시대가 변하면 진리도 변한다. 장소가 변하면 진리도 변한다. 이곳에서 진리인 것은 저곳에 가면 진리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다.

## 6. 철학은 고통의 내용을 변형시키는 기술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 철학에서 싹을 틔웠다. "알레스 레벤 이스 트 라이덴 *Alles Leben ist Leiden*", 즉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sup>14)</sup>라는 주장을 인정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통의 내용은 다양하다. 사람마다 다른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철학자는 이런 고통의 이면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 한다. 그 뒤에서 본질을 찾아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통의 뒤로 들어가기 위해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철학자가 직면한 위기의 순간이다.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에 버금가는 철학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니체는 그런 철학을 원하지 않는다. 그는 오로지 그런 고통을 뚫고 지나가 마침내 극복해낸 소리만을 담아놓은 그런 철학을 원할 뿐이다.

- 내가 겪은 심각한 질환의 시기, 그때 얻은 이득을 오늘까지도 나 자신을 위해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저 시기에 관해 내가 충분한 감사를 표하지 않고 작별하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아챌 것이다, 또한 나는 나의 변덕스런 건강 덕분에 모든 거 칠고 모난 정신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수많은 종류의 건강 상태를 거둬서 통과하고 또 통과해야 하는 철학자는 그만큼 많은 종류의 철학을 뚫고 지나가게 된다; 그는 그의 상태를 가장 정신적인 형식과 원거리로 옮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 이러한 변형의 기술이 바로 철학이다, (27쪽 이후)

왜 철학을 공부하느냐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이 글을 읽혀주고 싶다. 삶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바로 고통이라는 사실은 중요한 인식이다. 염세주의 철학도 허무주의 철학도 바로 이 점에서 철학의 의미를 찾고 있다.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고통을 대중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니체는 "내가 충분한 감사를 표하지 않고 작별하지는 않으리라"는 의지로 충만해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라는 말이 있다. 이 세상은 참고 견뎌야 하는 세상이라는 뜻이다. 참고 견뎌야 전제되어야 해탈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기독교에서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sup>(야고보서1:12)</sup>다고 했다. 신은 믿는 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sup>(히브리서2:10)</sup>신다는 뜻이다. 그래서 고통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고통은 극복의 대상이다. 극복하고 떠날 때는 니체처럼 "내가 충분히 감사를 표하지 않고 작별하지는 않으리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고통은 건강이 약해졌을 때 고개를 든다. 고통은 맞서지 못할 때 강하게 다가오는 여우같은 놈이다. 강자에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덕스러운 고통과 잘 어울릴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나는 나의 변덕스런 건강 덕분에 저 모든 거칠고 모난 정신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변덕스러운 건강 덕분에 거칠고 모난 정신보다 앞

14)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499쪽.

설 수 있었다는 얘기다. 번덕스러운 건강 덕분에 거칠고 모난 정신보다 더 나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거칠고 모난 정신으로 살 수도 있었다. 하지만 니체에게는 번덕스러운 건강이 있어서 그런 정신을 멀리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니체는 자주 아픈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서 불만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 몸 때문에 거칠고 모난 정신이 스며들지 못하게 되었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도하고 있는 것이다. 본받고 싶은 마음이다. 몸이 자주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는 소리로 들려오기 때문이다. 병에 들리면서 건강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고나 할까.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고통을 인식하면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고통을 알아야 삶이 보인다. “수많은 종류의 건강 상태를 거둬서 통과하고 또 통과해야 하는 철학자는 그만큼 많은 종류의 철학을 뚫고 지나가게 된다.” 참 좋은 말이다. 좋은 건강 나쁜 건강, 이런 건강 저런 건강, 다양한 건강 상태를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철학자가 된다. 이 소리는 왠지 쇼펜하우어의 주장을 닮아 있기도 하다. “말하자면 철학자란 당황스런 상태를 뚫고 헤쳐 나오려고 하면서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sup>15)</sup>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당황스런 상태”는 니체가 말하는 “수많은 종류의 건강 상태”와 같은 의미로 읽어도 무방할 듯 싶다. 니체가 더 추가하는 생각은 건강 상태에 따라 철학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약 나쁜 건강 상태에서 만들어진 허약한 철학을 접하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 관건이다. 허약한 철학 때문에 삶 자체가 희생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하나의 철학적 사상을 멀리 두고 생각해보는 훈련이다. 진정한 철학자는 이런 훈련으로 단련된 정신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그의 상태를 가장 정신적인 형식과 원거리로 옮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견 이거고 저견 저거구나 하는 판단이 설 수 있도록 독서를 해야 한다. 파도가 오면 파도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파도에 휩쓸리면 위험하다.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그것을 “가장 정신적인 형식과 원거리로 옮겨놓을”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변형의 기술이 바로 철학이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철학의 정의다.

우리 철학자들에게는 일반 민중들처럼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영혼과 정신을 분리할 수 있는 자유는 더더욱 없다, 우리는 생각하는 개구리가 아니다, 차가운 내장을 지니고서 객관화하고 기록하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는 항상 산고를 겪으며 우리의 사상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으며 어머니로서 피, 심장, 불, 기쁨, 정열, 고통, 양심, 운명, 숙명 등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그 사상에 주어야만 한다, 삶 -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가 빛과 불꽃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것이며, 또한 우리와 만나는 모든 것이다, 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28쪽)

니체의 철학이 주목하는 것은 삶뿐이다. 삶의 주인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뿐이다.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사람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고 또 삶이 없는 사람은 허상일 뿐이다. 자기 자신이 빠진 세상은 의미가 없고 또 삶이 없는 자기 자신은 망상일 뿐이다. 삶은 오로지 현실적인 영역과 연결될 때에만 의미가 있다. 삶은 오로지 실존적 의미에서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15)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87쪽.



삶을 삶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만이 니체의 철학에서 관심을 끌 뿐이다. 삶을 삶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역겨움을 토로할 뿐이다. 그래서 그의 철학을 생철학이라 부르는 것이다. 삶 이외에는 모든 것이 그저 허무할 뿐이다. 그래서 또한 그의 철학을 허무주의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허무함은 삶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위기를 초래할 뿐이다. 허무한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도 안 된다. 허무함은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또 동시에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니체에게 신앙의 대상이다. 모든 것은 삶이라는 큰 강물로 이어진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또 “우리가 빛과 불꽃으로 변화시키는 모든 것이며, 또한 우리와 만나는 모든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 속에는 그러니까 세상을 밝혀주는 빛의 존재가 내포되어 있다.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여기에 속하지 못한다.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삶을 살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주목하는 삶의 현상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있는 자유” 따위는 믿지도 않는다. “영혼과 정신을 분리할 수 있는 자유는 더더욱” 믿지 않는다. 가장 현상계에 가까이 있는 것이 육체이고 가장 본질계에 가까이 있는 것이 정신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 영혼이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할 뿐이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으면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완성한다.

많은 이들이 이 부분에서 영혼과 정신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곤 한다. 쉽게 생각하면 된다. 영혼은 육체를 가진 모든 존재에게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동물에게도 영혼은 있다. 육체를 통해 전달되는 외부의 정보들을 동물들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동물들도 그 정보들을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물들의 생각 속에서 빠져 있는 것은 정신이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정신세계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정신은 이성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이성은 오로지 인간만이 가진 능력이다. 이성은 인간의 전유물이다.

인간은 동물이기도 하지만 동물이 아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개구리가 아니다.” 그런 개구리는 동화 속에서나 나타날 뿐이다. 상상이 만들어낸 존재에 불과하다. 인간처럼 생각하는 개구리는 현실 속에서는 없다. 또 우리는 “차가운 내장을 지니고서 객관화하고 기록하는 기계가 아니다.” 들어간 내용물을 하나의 형태로 짊어내듯이 그렇게 작업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 똑같은 과제물을 가지고도 서로가 다른 내용의 결과물을 산출해낸다. 이것이 인간의 세계이다. 똑같은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상한 느낌이 들게 될 뿐이다. 심한 경우에는 표절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간적인 작업의 영역에서는 이처럼 똑같은 것을 오히려 거부하는 대상으로 삼을 뿐이다.

니체의 철학은 생철학이다. 삶을 “가장 정신적인 형식과 원거리로 옮겨놓”는 “변형의 기술”에 능통한 철학이다. 그 변형은 경우에 따라 오랜 세월이 요구될 때도 있다. 누구는 죽음을 앞두고 ‘아~ 세상이란 이런 것이구나~’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삶을 정신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철학자가 할 일이다. 그리고 그 변형의 정신적 형태는 삶이라는 현장성과 무관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항상 산고를 겪으며 우리의 사상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으며 어머니로서 피, 심장, 불, 기쁨, 정열, 고통, 양심, 운명, 숙명 등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그 사상에 주어야만 한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오로지 현실 위에서만 건물이 세워지기를 고집한다. 시간과 공간의 조각들이 경험의 내용이 되고, 또 그것들이 벽돌처럼 하나씩 모여 들어 하나의 건물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생철학에서 생애가 빠진다면 그것은 허무한 것이다.

생, 삶, 인생, 현상, 실존 등 다양한 개념들이 모두 하나의 이념을 둘러싸고 돈다. 육체와 영혼 그리고 정신이 하나로 모여 인간을 완성한다. 병든 육체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병든 정신도 분명히 존재한다. 질병은 인생의 문제이다. 싯다르타도 생로병사(生老病死)를 고민하면서 6년이라는 고행을 했었다. 아플 때 인간은 건강을 염원한다. 어느 한 구석도 아프지 않은 상태를 동경한다. 완전한 건강은 이념일 뿐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어딘가에는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의 상처가 트라우마로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다. 건강은 늘 질병과 함께 한다. 건강을 위협하는 온갖 것은 병으로 연결된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생철학이고, 그 생철학은 건강과 질병을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리고 병에 관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커다란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최종적인 해방자이다. 그것은 U를 X로, 그것도 알파벳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 진짜 올바른 X로 만드는 커다란 회의의 스승이다. 커다란 고통, 시간을 끄는 길고 오랜 고통, 생나무 장작에 불태워지는 고통만이 비로소 우리들 철학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닌 궁극적인 깊이에게까지 이르게 하고, 모든 신뢰와 선의, 부드러운 가식, 온순, 중용 등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인간성을 쏟았던 것들과 결별하도록 만든다. 나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를 '더 낮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심오하게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다.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 금지와 경멸, 의지력을 내세우는 것을 배워, 아무리 고문을 가할지라도 독기를 품은 허로서 이를 버텨내는 인디언처럼 행동하건, 아니면 고통 앞에서 사람들이 열반이라고 부르는 저 동양의 무<sup>무</sup>로, 입과 귀를 닫는 완고한 자기 포기, 자기망각, 자기소멸로 빠져들건 간에 우리는 이 길고 위험한 극기 훈련을 거쳐 다른 사람이 된다. (28쪽 이후)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라면 그 운명 속에서 웃을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했다. 가련하고 알량한 즐거움이라도 삶을 버티게만 해준다면 손을 뻗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살고 싶은 것이다. 죽음을 선택하는 자도 살 수 없어서 마지막 수단으로 죽음에서 해결점을 찾고 있을 뿐이다. 울면서 태어난 자는 모두가 살고자 발버둥친다.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인간의 호흡이다.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것이 심장의 박동이다. 모든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때에는 그것의 고마움을 모르고 살아간다. 하지만 고장이 나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 느껴진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가슴을 움켜잡고 오만상을 찌푸리게 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고통이 오기 전에 고통의 대가가 되어야 한다. 고통은 결코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겠지만 허무주의 철학은 그런 사탕발림으로 사람을 "유혹"하려하지 않는다. 낭만적인 소리들에 대해서는 잔인하리만치 직설적이다. "나는 그러한 고통이 우리를 '더 낮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좀 희망적인 소리를 들려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니체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철학자이다. 그는 진실만을 고수한다. 상처와 고통은 분명 삶을 위협하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 고통이 거듭되면 될수록 삶을 위한 힘은 소모될 것이 분명하다. 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힘내라! 힘! 넌 살 수 있어!'하면서 응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상처의 흔적은 남는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이다. 눈물을 흘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심오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통의 순간들이 사람의 마음을 깊게 만든다. 아픔을 느끼게 하는 상처는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갈 때 남다른 향기를 뿜어내는 존재가 될 수 있다. 타인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위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누구나 상처를 운명처럼 끌어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은 인식의 수단”(인간적<sup>1</sup> 14쪽)이라 했다. “커다란 고통이야말로 정신의 최종적인 해방자이다.” 표현이 좀 거칠어졌다. 하지만 그 거친 표현을 견뎌낼 때 ‘즐거운 학문’이 실현된다. 질병이 깨달음의 경지에 올려놓는 수단이다. 그리고 질병이 동반하는 고통이 클수록 최종적인 해방의 순간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을 뿐이다. 인식과 깨달음은 같은 말이고, 이것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해방으로 나아가게 해준다는 사실을 신앙처럼 믿어야 한다. 그것이 허무주의 철학이 바라는 바다.

고통을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즐거움의 원인으로 전환시키는 “변형의 기술”에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사랑을 할 때처럼 아픈 것이 아픈 것이 아닐 수 있다. 비명을 지르고 거친 호흡을 쏘아내면서도 상대를 끌어안게 되는 묘한 체험을 가능하게 해주는 “변형의 기술”에 대가가 되어야 한다. 그가 바로 삶의 대가인 것이다. 생활의 달인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은 고통이 아닐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허무주의 철학이 전하고자 하는 최고의 진리인 셈이다.

“커다란 고통, 시간을 끄는 길고 오랜 고통, 생나무 장작에 불태워지는 고통만이 비로소 우리들 철학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지닌 궁극적인 깊이에게까지 이르게 하고, 모든 신뢰와 선의, 부드러운 가식, 온순, 중용 등 아마도 우리가 이전에는 우리의 인간성을 쏟았던 것들과 결별하도록 만든다.” 허무주의 철학은 이전 것과 결별하게 해준다. 기독교에서는 이를 두고 중생(重生)이라고 말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5:17)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3:3) 중생은 구원의 요소다.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의 중생론리와 차이가 있다면 삶이 부여하는 고통의 짐을 피하지 말라는 것에 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11:28)라고 성경이 말했다면 니체는 인식의 수단이 되는 질병을 감당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커다란 고통”만이 “커다란 회의의 스승”임을 역설하고 있다. 허무한 춤을 추게 하는 것은 고통뿐이다. 고통이라는 길고 긴 터널을 통과하지 않고서 허무의 춤을 제대로 출 수는 없다. 니체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커다란 고통, 시간을 끄는 길고 오랜 고통, 생나무 장작에 불태워지는 고통만이 [...] 우리가 지닌 궁극적인 깊이에게까지 이르게” 한다. 이 글과 관련하여 시 한 편이 떠오른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1875-1926))의 시다.

오라 너, 너 마지막이여, 내가 인정하는,  
육체의 조직 속에 있는 불치의 고통:  
내가 정신 속에서 탔던 것처럼, 보라, 나는 탄다  
네 속에서; 나무는 오랫동안 저항했다,  
네가 태우던 그 불꽃에 동의하기를,  
이제 그러나 내가 너를 살린다 그리고 네 속에서 탄다.  
나의 이곳에서의 부드러운 존재는 너의 분노 속에서  
이곳이 아닌 지옥의 분노가 된다.

아주 순수하게, 아주 계획 없이 미래로부터 자유로이 오른다  
 나는 고통의 혼란한 장작더미 위에서,  
 어디에서도 이렇게 확실하게 장래적인 것을 살 수 없다  
 품고 있는 것을 침묵하는 이 마음을 주고서,  
 아직도 나인가, 저기 알아볼 수 없게 타고 있는 자가?  
 기억들을 나는 이쪽으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오 인생, 인생! 바깥의 존재여,  
 그리고 나는 불꽃 속에 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포기, 그것은 그런 병이 아니다  
 언젠가 어린 시절 때처럼, 뒤로 미룬, 변명  
 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외쳤고 속삭였다,  
 예전에 너를 경악시켰던 것을 이것에 섞지 말라]<sup>16)</sup>

릴케는 이 시를 자신의 시작 노트 마지막에 적어놓았다. 죽기 바로 직전에 집필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1926년 12월 중순”<sup>17)</sup>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12월 29일, 밤이 가장 긴 날인 동지<sup>冬至</sup>를 넘기고 며칠 후 릴케는 죽음을 맞이했다. “봄에 죽고 싶다”<sup>18)</sup>던 시인의 소망은 이루지 못한 채 영면에 빠져든 것이다. 그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백혈병이었다. 백혈병! 나는 이 병을 겪어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고통인지 모른다. 스스로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말을 하기가 참 곱고럽다. 피의 문제로 앓았던 병이라고는 그저 감기 정도가 고작이다. 얼마나 아팠을까? 사랑하는 두 천재를 먼저 보내야 했던 루 살로메(Lou Andreas-Salomé(1861-1937))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녀가 사랑했던 두 남자는 웬지 닮은 데가 많다. 둘 다 많이 아팠고 자주 요양을 떠나야했던 남자들이다. 고통을 업<sup>業</sup>으로 삼고 살아야 했던 운명이었다. 많이 아팠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출혈성 백혈병과의 목숨을 건 싸움에서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시인의 모습을 어떻게 해야 이해할 수 있을까? 멈추지 않는 피를 억지로 막으며 살아야 했던 삶은 어떤 삶일까? 아물지 않는 상처를 삶의 일부분으로 감수해야 하는 고통은 어떤 것일까? 얼마나 아팠으면 “나는 탄다”고 고백했을까? “불꽃에 동의”하고 싶지만 몸은 타지 않으려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 불꽃 속에서 시적 자아는 외쳐댄다. “나는 불꽃 속에 있다”고. 그리고 타면서 “나는 고통의 혼란한 장작더미 위에서” “아주 순수하게, 아주 계획 없이 미래로부터 자유로이 오른다”는 것을 인식한다. 마치 “불사조”(아침, 420쪽)처럼 자신을 불태우고 새롭게 태어난다. 이승의 고통으로 자신을 불태우고 저승의 새로운 삶을 쟁취한다. “오 인생, 인생: 바깥의 존재여”하며. 죽음을 직면하게 하는 고통을 단말마<sup>斷末魔</sup>의 고통이라고 말한다. 임종<sup>臨終</sup>의 순간에 느끼는 고통은 어떤 것일까? 삶과 죽음 사이에 놓인 고통은 어떤 말로 설명이 가능할까? 죽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고통이다. 죽은 자는 말을 할 수 없으니 도저히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시인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버텼다. 그 버팀의 증거가 시로 승화되고 있다. 시의 II연에 해당하는 부분은 꺾쇠괄호 속에 넣어놓았다. 힘이 부족했나 보다. 마지막 문장을

16) , 이동용: 나르시스, 그리고 나르시스즘, 책읽는 사람들 2001, 378쪽 이후.

17) Rilke: Sämtliche Werke, Band II, hg. v. Rilke-Archiv, Frankfurt am Main 4/1992, 511쪽; “wohl gegen Mitte Dezember 1926”.

18) 이동용: 나르시스, 그리고 나르시스즘, 위의 책, 369쪽.

완성해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던 것 같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서 일생을 마감해야 하는 순간, 시인은 무엇인가 창조를 하고 있었다. 미완으로 끝난 시詩에 불과하지만 절에서 사용하는 말<sup>19</sup>처럼 웬지 침묵으로 말을 이어가고 있는 듯하다.

시인은 마지막 순간에 “포기”라는 단어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 같다. 불교 용어로는 완전한 체념이라고 할까. 그것이 바로 “세계로부터의 구원인 체념”<sup>19)</sup>이다. 포기로 번역을 하든 체념으로 번역을 하든 그런 말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면 독서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입에 담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마지막 구원의 순간에 내뱉는 말이 포기다. 이성이 남기는 마지막 말이 체념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포기나 체념이 아닐 것 같다.

니체가 말하는 “생나무 장작에 불태워지는 고통”이나 릴케가 말하는 “혼란한 장작더미 위에서” 타들어가는 육체가 전하는 고통은 웬지 닮아 있다. 종신<sup>終身</sup>의 순간이다. 현상적 고통의 원인이 되는 육체와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다. 이 순간을 넘기고 나면 “우리가 지닌 궁극적인 깊이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삶을 극단까지 몰고 간다. 거기서 살아남기를 바라면서 단말마의 고통을 겪게 한다.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 금지와 경멸, 의지력을 내세우는 것을 배워, 아무리 고문을 가할지라도 독기를 품은 혀로써 이를 버터내는 인디언처럼 행동하건, 아니면 고통 앞에서 사람들이 열반이라고 부르는 저 동양의 무로, 입과 귀를 닫는 완고한 자기포기, 자기망각, 자기소멸로 빠져들건 간에 우리는 이 길고 위험한 극기 훈련을 거쳐 다른 사람이 된다.” 말이 좀 길다. 허무주의 철학은 다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철학이다. 고통을 통해 지금까지의 모습을 허물처럼 벗어던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열망한다.

“다른 사람!” 여기서 말하는 다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다름은 “길고 위험한 극기 훈련을 거쳐”야만 주어지는 최후의 걸작품이다. 허무주의는 삶 자체를 허무하게 만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채색하는 철학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버랑 끝으로 내몰면서도 삶을 사랑하는 힘을 키워주는 철학이다. 그 어떤 순간에도 “삶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가능하다”<sup>(29쪽)</sup>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남겨놓는다.

허무주의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한다. 신세계를 경험하게 한다. 모험여행을 감행하게 한다. “삶에 대한 사랑”은 허무주의 철학이 피우고자 하는 꽃이다. “다만 사랑의 방식이 바뀌는 것일 뿐이다.”<sup>(29쪽)</sup> “이러한 변형의 기술이 바로 철학이다”라는 말을 다시 기억하자. 사랑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삶을 위한 훈련소와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살아남으면 삶은 ‘즐거운 학문’으로 거듭날 것이다. 배울 것이 너무도 많은 즐거운 세상이 될 것이다. 춤추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행복을 알게”<sup>(29쪽)</sup> 될 것이다.

## 7. 신격화된 진리에 저항하는 허무주의적 중생<sup>重生</sup>

니체의 철학은 중생을 말한다. 거듭남을 목적으로 한다. 새롭게 태어날 것을 요구한다. 새롭게 태어나라! 이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정언명법이다. 새롭게 태어날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것이 니체의 철학이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과거의 것을 죽음으로 내몰고자 한다. 이전 것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고자 한다. “제때에 기억하는 것처럼 제때에 잊을 줄 아느냐”<sup>(반시대적II, 294</sup>

19)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264쪽.

쪽), 그것을 행복의 관건으로 삼는 것이다. 니체 철학은 “새로운 행복”(29쪽)을 지향한다. 새롭지 않으면 새로운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이 새로운 것이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행복은 니체가 말하는 새로운 행복이 아니다.

끝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러한 나락으로부터, 그러한 심각한 질병과 심각한 회의의 질병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사람은 새로 태어난다. 낡은 껍질을 벗고, 더 민감해지고, 더 악의적으로 되고, 기쁨에 대한 더 세련된 취향을,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보다 섬세한 혀를, 그리고 더욱 쾌활해진 감각과 기쁨 안에서 이제 보다 위험한 두 번째의 순진함을 지니게 되며, 동시에 더 천진난만하고 이전보다 백배나 더 영리해진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29쪽 이후)

“새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벼랑 끝에서 허무주의 철학은 “돌아오면서” 새로 다시 태어난다. 염세주의 철학은 그런 언덕과 마주하면 뛰어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가르쳤었다. “망상은 뛰어내리는 것 외에는 다시 아래로 내려갈 수 없는 언덕과 같다.”<sup>20)</sup> 뛰어내려야 한다는 것이 염세주의적 해결책이라면 ‘돌아서라’고 말하는 것이 허무주의이다. 돌아서라! 지금까지 희망을 걸었던 것에 절망을 느끼고 돌아서라! 지금까지 가치로 인정하던 것을 버리고 허무함으로 돌아서라!

허무주의 철학에서 배워야 할 것은 망각의 기술이다. “오,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잘 잊는 것,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sup>(30쪽)</sup> 그동안 이성의 힘에 긍지를 느끼며 살아왔다면 이제 그런 관념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가 왔다. 암기하고 기억하는 것에 “인간성”<sup>(28쪽)</sup>을 쏟아왔다면 이제는 그 반대의 것에 그 인간성을 쏟아야만 한다. 텅 빈 종<sup>罐</sup>이 맑은 소리를 내듯이, 그런 맑은 소리를 내는 이성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 조야한 취향,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진리에의 의지, 진리에의 사랑에 빠진 이 젊은이들의 광기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하기에 우리는 너무 노련하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쾌활하고, 너무 많은 화상을 입었으며, 너무 생각이 깊다. 우리는 베일을 벗겨낸 후에도 진리가 그대로 진리로 머물러 있으리라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것을 믿기에는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았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벌거벗겨보려 하지 않고, 모든 것에 관여하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세련된 일로 간주된다.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 인가요?”라고 어린 소녀가 어머니에게 물으며 말했다. “저는 그것이 점잖지 못한 일 같아요.” - 철학자들을 위한 암시! 자연이 수수께끼와 현란한 불확실성 뒤에 숨겨놓은 수치심을 보다 더 존중해야 한다. 어쩌면 진리는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가진 여자일지도 모른다. 아마도 그녀의 이름은 그리스어로 바우보<sup>Baubo</sup>가 아닐까? (31쪽)

소위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sup>(마태복음1:23)</sup> 즉 기독교인들이 믿는 진리의 신은 아무에게나 자기 자신을 허락한다. 수치심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음탕한 여자에 해당하는 “바우보가 아닐까?”하고 의혹을 품게 된다. 그리스 신화에서 바우보는 성적 욕망으로 연결된다. 그녀의

20)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510쪽.



프리에네Priene에서 발견된 테라코타, 즉 구운 흙으로 만들어놓은 그리스의 인형 바우보. 육체가 얼굴인 존재로 표현된 것이 특징.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 바우보 자체가 '쇼쓰Schoß'<sup>21)</sup>, 즉 사타구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아무하고나 섹스를 즐기는 그런 여자였던 것 같다. 그녀의 이름과 자주 연결되는 개념으로는 겉으로 드러난 '불바Vulva'<sup>22)</sup> 혹은 '바기나Vagina'<sup>23)</sup> 등이 있다. 모두 여성의 음부와 관련된 말들이다. 그런데 니체는 이런 말들과 연결되고 있는 바우보를 진리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의 특징이다.

아무하고나 관계를 가지는 음탕한 여자 바우보가 진리의 이름이다. 니체의 허무주의적 시각에서는 "절대적 진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한 사실도 없다."<sup>(인간적, 25쪽)</sup> 모든 것에 다 통하는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진실로 믿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어느 순간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때 진실은 곧 거짓으로 드러나고 만다. 이러한 거짓과 마주할 때 과감하게 허무함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한다.

과감하게 망각의 강을 건널 수 있어야 한다. 그 어떤 미련도 갖지 않고 기억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는 어린 소녀의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한 여자의 생각이다. "신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리고 소녀는 스스로 대답을 내놓는다. 그만큼 당연한 소리라는 얘기다. "저는 그것이 점잖지 못한 일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과거의 인류는 이런 종류의 진리를 위해 희생을 하려 했다. "이 조야한 취향,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진리에의 의지, 진리에의 사랑에 빠진 이 젊은이들의 광기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한마디로 기분이 나쁘다는 얘기다. 소위 "걸레는 닦으라고 있는 것이지, 덮고 자는 것이 아니"<sup>24)</sup>라는 얘기다. 진리는 도구가 되어야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영원불변의 진리 따위를 믿기에는 "우리는 너무 노련하고, 너무 진지하고, 너무 쾌활하고, 너무 많은 화상을 입었으며, 너무 생각이 깊다." "이것을 믿기에는 우리는 너무 오래 살았다." 너무 변했다. 변한 시각만큼 세상도 그만큼 변했다. 변한 세상만큼 진리의 모습도 변했다. 신격화되어 있는 진리의 모습에 대해 니체는 허무함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베일을 벗겨낸 후에도 진리가 그대로 진리로 머물러 있으리라는 것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이제 환상은 깨지고 말았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되었다. 이와 함께 모든 행복의 근원을 신에게로 집중시키던 "점잖지 못한 일"을 그만두고자 한다.

그리고 또 한 번의 모토가 등장한다. 독어판 원문을 살펴보면 "내 집 문 위에 적힌 글" 바로 위에 배치해놓은 또 다른 모토이다.<sup>25)</sup> 이 두 개의 모토를 책세상 번역에서는 두 군데로 나눠 놓았을 뿐이다. 뭐 특별히 실수를 한 것은 아니니 이런 것은 무시하고 내용을 살펴볼도록 하자.

시인과 현자에게는 만물이 친구이고  
그에게 바쳐진 것이며, 모든 체험이 유익하고,  
매일매일이 신성하며, 모든 인간이 신과 같은

21) <https://de.wikipedia.org/wiki/Baubo>

22) 곳.

23) <https://de.wikipedia.org/wiki/Schoß>

24) 영화 《황제를 위하여》(2014)에 나오는 상하( )의 대사.

25) 참고, Nietzsche: Sämtliche Werke. Kritische Studienausgabe, Band 3, München 1980, 343쪽.

이 문장은 에머슨(Ralph Waldo Emerson, 1803-1882)이 한 말이다. 니체가 이 문장을 모토로 삼은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시각이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깨달은 자에게는 세상이 놀이터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온갖 원리들에 능통한 자에게는 세상살이가 재밌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 세상은 생지옥이나 다름이 없다. 무엇을 해도 힘들고 따분할 뿐이다. 모든 것에서 유익함보다는 유해한 것만을 발견하는 시각이야말로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이 없다. 불평불만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만큼 짜증나는 존재가 없다. 이에 반해 무엇을 봐도 새로움을 찾아내는 시각이 있다. 모든 것에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그런 정신이 있다. 그에게 세상은 배울 것이 너무도 많은 즐거운 학문의 전당이 될 뿐이다.

할 줄 아는 자에게는 “만물이 친구”다. 소위 “더러운 물로도 몸을”(인간적II, 59쪽) 씻을 줄 아는 자에게는 모든 물이 깨끗하다. 자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 “바쳐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고마운 선물들이다. 바람도 구름도 비도 흙도 돌도 모두가 좋다.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체험이 유익”하다. 깊은 상처를 남긴다 해도 죽지 않았다면 좋은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인생은 계속해서 더욱 강해질 뿐이다. “매일매일이 신성하며, 모든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이다.”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이다! 아마도 니체는 이 대목에서 전율을 느꼈을 것만 같다. 그래 내가 신이다 하고 말이다.

인생은 시간으로 채워져 있다. 한 평생이라는 시간은 참으로 긴 시간이다. 온갖 인연들로 채워져 있다. 만남과 이별을 거듭하면서 인생은 진행된다. 행복과 불행은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 다른 얼굴을 하면서 다가오게 마련이다. 똑같은 얼굴로 한 평생을 살 수는 없다. 그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다. 인간의 얼굴은 다양하게 변할 수 있다. 다양한 표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가급적이면 웃는 얼굴로 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니체는 처녀작 《비극의 탄생》 서문에서 이미 “웃음을 신성한 것”(비극, 23쪽)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내게 배워라 - 웃음을!”(같은 곳)이라고 권면한 바 있다.

매일매일이 신성하다! 그리고 웃음이 신성하다! 삶을 삶답게 만드는 모든 것은 신성하다.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이 만들어내는 어감(語感)에 익숙해져보자. 해맑은 웃음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가져보자. 진지함이 없다고 야단치지 말아보자. 말을 안 듣는다고 화를 내지 말아보자. 웃음을 인정하고 나면 상황이 변한다. 하루하루를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좋을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다.

## 8. 허무주의 철학으로의 초대

서문 뒤에 니체는 “독일식 각운에 맞춘 전주곡”이라 불리는 또 한 번의 시들을 배치시켰다. 그리고 그 제목을 <농담, 간계 그리고 복수>라 정했다. 지극히 야만적인 제목이 아닐 수 없다. 전통적 미덕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목이기 때문이다. 농담보다는 진지함을, 간계보다는 정당성을, 복수보다는 사랑을 외쳐온 것이 도덕적 전통이다. 그런데 니체는 그 반대의 것에 호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것에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은 이런 식으로 가치를 뒤바꿔놓기를 일삼는다. 그리고 첫 번째 시다.



## 초대

미식가들이여, 내 음식을 맛보시라!  
내일이면 그 맛이 조금 낮게 느껴질 것이고  
모래면 맛있다고 느껴질 것이다!  
그대들이 내 음식을 더 원한다면  
내 일곱 가지 오래된 것들이  
내게 일곱 가지 새로운 용기를 주리라 (37쪽)

니체는 허무주의 철학으로 한껏 밥상을 차려놓았다. 그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맛난 음식을 선보였다. 그리고 당당히 말한다. “미식가들이여, 내 음식을 맛보시라!”고.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만들어놓은 음식이 지금 당장은 맛을 못 느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내일이면 그 맛이 조금 낮게 느껴질 것이고 / 모래면 맛있다고 느껴질 것이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맛이 더해갈 것이라는 얘기다.

사실 허무주의 철학은 처음에는 맛이 없다. 허무라는 개념 자체가 전하는 맛은 너무 쓰기만 하다. 당황스러운 맛이 아닐 수 없다. 삶이라며! 살라고 해놓고선 허무라니! 뭐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쉽게 친해질 수 없는 음식이다. 친해지지 못하고 돌아선 자에게 남은 첫 인상은 굵지 않을 것이다. 특히 “신은 죽었다”(200쪽)는 식의 거침없는 발언에는 토할 것 같은 구토증을 느끼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가 말하는 의미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다.

하지만 내일도 먹어보고 모래도 먹어보게 된다면, 즉 내일도 읽어보고 모래도 읽어보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니체는 확신한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어달라는 말이다. 그러면 그가 말하는 허무주의 철학도 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허무주의의 “음식을 더 원한다면 / 내 일곱 가지 오래된 것들이 / 내게 일곱 가지 새로운 용기를 주리라”고 희망을 걸어본다. 독자들이 허무주의 철학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더 원하기만 한다면 지극히 행복할 것만 같다는 것이다. “새로운 용기”로 허무주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만 같다고. 허무주의 철학은 독자의 호응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니체는 독자들이 자신의 철학을 이해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맛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내일도 모래도 계속해서 먹어달라는 것이다.

## 나의 행복

추구하는 것에 지치게 된 이후로 나는  
발견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역풍을 만난 이후로 나는  
어떤 바람에도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 (37쪽)

허무주의 철학자가 기대하는 행복감은 남다르다.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니체는 늘 적극적이다. 적어도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늘 도전적이고 모험적이다. “추구하는 것에 지치게 된 이후로 나는 / 발견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까? 대부분 지치면 포기한다. 힘들면 체념하게 마련이다. 울타리에 갇혀 있던 릴케의 표범

도 “창살들의 스쳐 지나감에 의해 / 그토록 피곤해 있었다”<sup>26)</sup>고 고백하지 않았던가. “아무 것도 잡지 못할 정도로” 지쳤다. 그토록 피곤하고 지쳐 있는 표범이 취한 행동은 눈을 감고 “가장 작은 원 속에서”<sup>27)</sup> 뱅글뱅글 도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제자리에 서서 뱅글뱅글 도는 것이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행동을 할까?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 어디에도 나아갈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 살 길이 막막하다. 미래가 없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시인 릴케는 이런 삶에서도 해결책을 내놓았다. 내려놓음으로써 취하는 소극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니체는 전혀 다르다. 그의 허무주의적 발상은 소극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지극히 적극적이다. 위의 시에서 등장하는 두 번의 “이후로”는 극복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포기나 체념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다. 안 되는 것에 직면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태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다. 추구하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니체는 “발견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고 말한다. 안 된다고 안달복달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바꾸면 일이 간단해진다. 또 “역풍을 만난 이후로 나는 / 어떤 바람에도 항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렇다. 돛단배는 돛을 가득 채울 바람이 있어야 한다. 돛의 원리만 이해하면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어오든 상관없다. 모든 바람이 전진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 마치 “이러한 변형의 기술이 바로 철학이다”<sup>(28쪽)</sup>라는 주장처럼.

## 두려움 없이

네가 서 있는 그곳을 깊이 파헤쳐라!  
그 아래에 샘이 있다!  
몽매한 인간들일랑 외치도록 놔두어라  
“아래에는 언제나 지옥뿐이다!”라고 (38쪽)

니체는 《아침놀》의 서문에서 “오랫동안 두더지처럼 그리고 홀로 존재”(아침, 10쪽)하며 작업하는 철학자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이런 “지하에서 작업하고 있는 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아침, 자신의 구원, 자신의 아침놀에 도달하게”(아침, 9쪽) 된다. 모든 아침놀은 어둠을 헤치고 나온다. 모든 행복은 불행의 전제로 한다. 모든 기쁨은 슬픔을 딛고 일어선다. 모든 춤은 설 수 있는 두 발을 요구한다. 모든 멋진 말들은 기나 긴 침묵을 뚫고 나온다. “오랫동안 두더지처럼 그리고 홀로 존재했다면 사람들은 침묵하는 것을 완전히 잊고 마는 것이다 - -”(아침, 10쪽) 니체는 이 문장을 침묵으로 말을 이어가게 해놓았다. 침묵의 소리를 들려주고자 했던 것이다. 모든 소리는 듣는 자의 마음 밭에서 특정한 씨앗으로 심겨지게 된다. 그 씨앗이 꽃이 될지 나무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마음의 상태가 문제일 뿐이다. 받아들이는 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일 뿐이다.

어둠 속에서 아침놀이 밝아오듯이 샘물을 얻으려면 땅을 파헤쳐야 한다. 황폐한 땅 속에서 샘물이 솟아나온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올라갈 것을 바라며 살아왔던 중세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네가 서 있는 그곳을 깊이 파헤쳐라! / 그 아래에 샘이 있다!” 니체의 함성이 들려온다. 열정으로 쏟아내는 외침이 들려온다. 네 발 아래 샘물이 흐르고 있다고 희망에 찬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제발 좀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다. 허무주의 철학은 삶을 위한 샘물을 얻고자 한다.

26) , 이동용: 쇼펜하우어, 돌이 별이 되는 철학, 동녘 2/2015, 53쪽 이후.

27) 같은 책, 54쪽.

오랫동안 중세적 분위기가 세상을 지배했다. 세상 끝에는 나락이 있을 거라 믿었다. 땅 밑에는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는 지금도 중세의 빙하 속에서 살고 있다.”(반시대Ⅲ, 427쪽)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는 언제나 지옥뿐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니체의 허무주의 철학은 새로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악마도 없고 지옥도 없다”(차라, 28쪽)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아니 신도 없다! 신이 존재해야 한다면 그것은 인간 자신일 뿐이다. 즉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이다. “만물이 친구”이고 “모든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이다”(33쪽)라고.

## 대화

A, 내가 병들었던가? 이제는 다 나았는가?

누가 나의 의사였을까?

어떻게 내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까!

B, 이제야 비로소 네가 다 나은 것을 알겠군.

잊어버리는 자만이 건강한 법이니까, (38쪽)

허무주의적인 춤은 모든 것을 잊고 추는 춤이다. 무아지경(無我之境)이라고 할까. 망아(忘我)의 춤이라고 할까. 황홀경(恍惚境)이라고 할까. 디오니소스 신의 추종자들인 사티로스와 마이나데스들은 이런 춤을 추는 대가들이었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이러한 “디오니소스 축제의 실존을 증명”(비극, 37쪽)하려 했다. “디오니소스적인 광란의 축제에서 세계 구원의 축제와 변용의 날”(비극, 38쪽)이 실현되었다. 디오니소스적 원리에 의해서 현상의 원리로 간주되는 “개체화의 원리”(28)가 파괴된다. 하지만 이러한 망아의 경지를 통해 자기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런 연유에서 디오니소스는 ‘뤼오이스(Lyāus)’<sup>29)</sup>, 즉 걱정을 덜어주는 자 혹은 걱정을 없애주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허무주의 철학의 관건은 망각의 기술에 있다. 이전에 존재했던 것을 잊을 수 있어야 허무함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문에 있던 만연체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그 고통에 대해 금지와 경멸, 의지력을 내세우는 것을 배워, 아무리 고통을 가할지라도 독기를 품은 혀로써 이를 버터내는 인디언처럼 행동하건, 아니면 고통 앞에서 사람들이 열반이라고 부르는 저 동양의 무로, 입과 귀를 닫는 완고한 자기포기, 자기망각, 자기소멸로 빠져들건 간에 우리는 이 길고 위험한 극기 훈련을 거쳐 다른 사람이 된다.”(28쪽 이후) 그렇다. 허무주의 철학자 니체는 다른 사람이 되는 비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다른 사람이 되고 싶으면 허무주의적 발상이라 불리는 “이 길고 위험한 극기 훈련”을 끝까지 견뎌내라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허무라는 음식은 맛을 더해갈 것이다.

니체도 구원론을 언급한다. 그의 철학에도 구원의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기독교의 그것과는 다른 구원논리다. 허무주의적 구원의 주체는 자기 자신뿐이다. 건강한 자기 자신이 구원의

28) “개체화의 원리(Principium individuationis)”를 쇼펜하우어에게서 배운 듯하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개별화의 원리”를 심도 있게 다뤘다. “우리가 알기로 다수성은 일반적으로 필연적으로 시간과 공간에 의해 조건 지어져 있으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개체화의 원리라고 부른다.”( :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위의 책, 227쪽.) 즉 개체화의 원리는 “개체의 존재 근거”(같은 책, 207쪽)를 밝혀주는 원리에 해당한다.

29) <https://de.wikipedia.org/wiki/Dionysos>; 참고, 이동용: 니체와 함께 춤을, 위의 책, 265쪽.

징표인 것이다. 그리고 니체는 시적 표현이긴 하지만 분명하게 말한다. “잊어버리는 자만이 건강한 법”이라고. 잊을 수 없어서 병들었다면 잊을 수 있는 것만이 건강회복의 관건일 뿐이다. 포기나 체념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잊을 수 없어 스스로 고통을 가중시킨 사람들이다.

잊음으로써 건강을 회복했다면 과연 “누가 나의 의사였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다. 자기 자신이다. 정말 끝까지 가 본 자는 안다. 자기 자신만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자신에게 구원의 열쇠를 손에 들려줘야 한다는 것을. 자기 안에 자기가 들어 있지 않을 때 병이 든 것이다. 정신이 나가 있을 때 병이 찾아드는 것이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도 잡지 못할 때 삶은 병이 들게 되는 것이다. 신의 뜻을 자기 뜻으로 무장한 사람만큼 광기를 부리는 자가 없다. 자신의 의견을 진리의 편에 세우는 자만큼 미친 사람은 없다. “이 조야한 취향,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추구하겠다’는 진리에의 의지, 진리에의 사랑에 빠진 이 젊은이들의 광기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 앞서 읽었던 문장이지만 다시 읽어보자. 배움에는 반복이 최고가 아니던가. 니체도 내일도 모레도 반복하라고 했다.

### 나를 따르는 것 - 너 자신을 따르는 것

나의 방식과 말에 유혹되어

나를 따르고 추종하려 하는가?

오직 너 자신만을 충실히 추종하라 -

그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 여윌수록! 여윌수록! (39쪽)

성경에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구원의 첫 걸음이었다. 그리고 그를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거부해야만 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태복음16:24)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을까? 사랑에 빠진 자도 자기 자신의 열정 때문에 사랑을 하는 것이다. 자기가 좋게 느끼기 때문에 사랑을 허락하는 것이다. 사랑이 아픈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허무주의 철학은 말도 안 되는 “자신을 부인”하는 구원논리를 거부한다. 허무주의 철학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따르라고 가르친다. 기독교의 정신과는 정면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신을 따르려던 의지를 저버리고 자기 자신을 따르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에머슨의 말을 다시 기억하자. “모든 인간이 신과 같은 존재이다.”(33쪽) 인간이 신이 아닌 신은 모두 허무하다. 이 말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허무주의 철학이라는 음식의 맛을 조금씩 알게 된 것이다.

### 초보자를 위한 위로

돼지들에 둘러싸여

구부러진 발가락으로 어쩔 줄 모르는 어린아이를 보라!

울기만 할 뿐, 그저 울기만 할 뿐이다 -

언젠가 서고 걷는 것을 배울 수 있을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말하노니  
곧 이 아이가 춤추는 것을 보게 되리라!  
두 발로 서게 되면  
또한 물구나무도 서게 될 것이다 (46쪽)

지금 이 책을 통해 니체를 처음 접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서고 걷고 뛰고 춤추고 물구나무서고 급기야 비상하게까지 하는 것이 허무주의 철학임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춤에 대한 이념은 《비극의 탄생》 서문에서도 언급된 바 있다. 잊었는가? 그럼 또 다시 읽어보자.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가슴을 들어 올려라, 높이, 더 높이! 그리고 다리도 잊지 말아라! 그대들의 다리도 들어 올려라, 그대들, 춤을 멋지게 추는 자들이여, 그대들이 물구나무를 선다면 더욱 좋으리라!”(비극, 23쪽) 니체가 한 말들로 잔치를 벌일 줄 아는 자, 그가 한 말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출 수 있는 자만이 허무주의의 밥상에서 맛난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성장할 것이다. 누구는 ‘아이를 낳아놓으면 저절로 크다’고도 말하더라. 믿어 달라. 아이는 기고 서고 뛰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당장 상황이 어려워도 절망할 일이 아니다. 지금 당장 “돼지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울 일이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상황은 변하게 마련이다. 세상은 늘 변하니까.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만 알면 된다. 그 누구도 이정표가 될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이정표가 될 뿐이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구원할 신神임을 깨달아야 한다.

#### 나의 독자에게

튼튼한 이와 튼튼한 위장 -  
이것을 그대에게 바라노라!  
내 책을 견뎌낸다면  
나와도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56쪽 이후)

허무주의의 밥상에 니체는 맛난 음식을 잔뜩 차려놓았다. 그는 첫 번째 시에서 “미식가들이여, 내 음식을 맛보시라!”면서 초대를 했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먹는다면 맛을 더해갈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이 허무라는 음식은 만만치 않은 음식이다. 쉽게 씹히지도 않고 쉽게 소화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니체는 “튼튼한 이와 튼튼한 위장”을 요구한다. 건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길고 위험한 극기 훈련”(29쪽)에 적합한 몸을 만들어놓고 달려들어야 한다. 준비도 되지 않은 채 허무주의의 훈련장에 발을 들여놓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훈련장에 들어설 때는 실전에 임하는 자세로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한다.

니체는 독자에게 바란다. 모든 것을 견뎌내 달라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훈련장에서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된다. 죽도 밥도 아니라는 얘기다. 훈련장에서 살아남아야 실전에서 영웅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내 책을 견뎌낸다면 / 나와도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훈련소를 나설 때 조교들과 악수를 나누는 기분이다. 멋진 화해의 장면이다. 이해가 만들어낸 감동의 순간이다. 이해하면 “만물이 친구”(33쪽)다. 모든 불편은 이해가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상황일 뿐이다.

## 이 사람을 보라

그렇다!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  
불꽃처럼 탐욕스럽게  
빛을 내며 스스로를 집어삼킨다  
내가 손대는 모든 것은 빛이 되고  
내가 버리는 모든 것은 숯이 되니  
나는 불꽃임에 틀림없다 (60쪽)

이 시의 제목은 원래 “에케 호모 Ecce homo”라고 한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서 나사렛 예수를 두고 한 말이다. 번역은 대체로 시의 제목에서처럼 “이 사람을 보라”<sup>30)</sup>로 하면 된다.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요한복음19:4) 빌라도가 예수, 즉 신을 지칭하는 말이다. 니체는 이 말을 자기 자신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한다. 내가 신이니 나를 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을 “불꽃”으로 설명한다. 왜냐하면 그가 “손대는 모든 것은 빛이 되고” 또 그가 “버리는 모든 것은 숯이 되”기 때문이다.

손대는 것마다 불이 붙는다. 그리고 손에서 버려지는 것마다 숯이 된다. 쓸모없는 재로 변한 것이 아니다. 숯은 다시 불을 붙일 수 있는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유용한 존재가 된다는 뜻이다. 허무주의의 밥상에서 허무라는 맛난 음식을 맛본 독자들은 이제 그 허무의 진정한 맛을 알고 있다. 그 맛에 대한 느낌은 이제 불꽃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 《아침놀》은 끝났다. 일출의 장관은 끝났다. 이제는 《즐거운 학문》으로 행복한 하루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니체의 허무주의의 불꽃에 의해 불이 자기 자신에게 옮겨 붙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불꽃임에 틀림없다”고. 스스로 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허무주의가 도래하게 된다.

이동용 (010-3261-3913; 인터넷카페 <http://cafe.daum.net/germanistik>)

30) [https://de.wikipedia.org/wiki/Ecce\\_homo](https://de.wikipedia.org/wiki/Ecce_homo)